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읽기 시즌1 - 5강 강의록
칸트 철학을 요약해줄 수 있을 네 가지 시적인 경구에 대하여 161쪽

0.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철학의 개괄적 내용

(0) 칸트 철학의 위상과 방법

→ 칸트의 선험철학의 의도 : 인간의 인식은 초월성에 대한 그릇된 시도를 야기하는, 지성에 서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는 것에만 관여한다는 것이다.

-이성영역의 축소 : 세계의 어두운 실재를 비추는 태양으로서의 이성에서 인간의 경험을 비추는 촛불/햇불로서의 이성으로의 전환(무한한 이성능력에서 유한한 이성능력으로의 전환)

그[칸트]는 “인식은 실재를 탐구하는 우리의 도구이다. 우리가 진리로 다가갈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진리를 발견하는 이러한 도구를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식의 “도구”를 비판하는 것이 인식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듯하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도구를 비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칸트는, 수영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철학자와 같다.

-『헤겔 근대 철학사 강의』(하워드 케인즈 지음, 강유원·박수인 옮김, 이제이북스, 2005년, 124~125쪽)에서

☞ 인식론적 난관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 :

-칸트의 철학방법 : 인식은 진리/실재 탐구의 도구 + 미리 진리를 발견하는 인식의 도구 비판하기

-헤겔의 비판 : 인식을 사용하기도 전에 인식의 결함을 비판하려는 칸트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헤겔

(1) 칸트의 비판철학

칸트는 자신의 철학적 화두인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인간의 근본 능력에 대한 본성과 한계를 밝히는 비판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 문제로 나누어 해명했다.

칸트의 용어 ‘순수한(reine/pure)’이란 ‘경험에서 독립한’이라는 뜻이다. 넓은 의미로는 경험에서 독립한 선험적 이성 일반, 즉 선험적인 인식능력인 이론이성과 의지능력으로서의 실천이성을 포함하고, 좁은 의미로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인식능력 전체를 의미한다.

①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 『순수이성비판』 - 제1비판서 - 순수이성의 근거와 한계 : 인간 인식의 원리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통해 자연의 객관적 법칙이 무엇인가를 해명하였다.

② 인간은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 : 『실천이성비판』 - 제2비판서 - 실천이성의 근거와 한계 :

실천적, 도덕적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원칙에 따라 행위해야 하는지를 정언명령으로 해명하였다. 정언명령(도덕 법칙)의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이다. ㉠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 모든 사람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우하라.

③ 인간은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 『판단력비판』 -제3비판서 - 판단력의 근거와 한계 :

특수를 보편으로 통합하는 판단력(“특수자를 보편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란 필연과 자유, 자연의 기계관과 목적관의 조화를 꾀하는 능력으로서, 안다는 것(순수이성)과 의욕한다는 것(실천이성) 사이에 작용하는 것이다. 현상계에 속하는 합법칙적인 자연(순수이성의 영역)과 초감성계에 속하는 자유(실천이성의 영역)라는 독립적인 두 영역을 상호 매개하는 것이 판단력이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는 개념이 목적론적 판단력과 감성적 판단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합목적성이다. 목적론적 판단력은, 유기체가 욕구능력의 규정 근거나 규정 근거와 필연적으로 결부된 현존의 표상과 관계를 가진 만족, 즉 식욕이나 성욕, 물욕 등 쾌와 불쾌의 욕망에 관계되는 관심에 관한 것이다. 감성적 판단력은 취미판단으로서 합목적적이기는 하지만 대상을 무관심한 상태로 관조하는 판단이다. 주어진 감각 표상을 정리하고 개념화하는 이성의 기능은 약해지고 직관과 상상력의 기능이 월등히 두드러지는 취미판단의 네 가지 계기는 무관심성, 무개념성, 목적 없는 합목적성, 필연성이다. “개념 없이 보편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판정하는 능력인 취미판단(미적 판단)에는 미와 숭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미의 판단에서는 상상력과 지성이 일치하지만, 숭고의 판단에서는 상상력과 지성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커서 크나큰 불일치를 겪는다.

칸트는 아름다움과 자연에 내재한 원리가 합목적적인 조화이므로, 인간은 결국 합목적적이고 아름다운 세계를 소망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칸트의 인식론

18세기의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수행한 작업은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인식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가’, 즉 ‘선험적 종합판단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이때 ‘선험적 형식’은 인식의 보편타당성과 필연성을 보증하는 것에 대응하고, ‘종합판단’은 경험 속에서 객관성 확보에 조응한다.

기존의 형이상학적 합리주의는 세계에 대한 보편타당한 인식을 타고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이성의 본유 관념으로 설명하여 독단론(獨斷論)에 빠졌다. 르네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대륙의 합리론은 이성의 본유관념과 논리에 따른 이성적인 직관을 인식의 궁극적인 권위로 간주하고 감각의 경험 내용을 무시함으로써 결국 독단론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다른 한편, 존 로크나 데이비드 흄 등의 영국 경험론은 감각적 경험을 인식의 원천으로 삼음으로써 인식의 확실한 기준이나 내용에 도달하지 못해 끝내는 회의론(懷疑論)에 빠졌다. 경험주의처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앎을 경험과 교육의 결과로만 설명할 경우, 인상과 관념의 인과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보편타당한 확실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고 회의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성의 능력을 과도하게 믿는 합리론은 사유할 수 있을 뿐인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경험을 지나치게 중시한 경험론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추구하는 욕망과 이념의 세계조차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난 세계의 경험으로 환원하려고 하였다. 칸트는 이러한 합리주의의 독단론과 경험주의의 회의론에서 나타나는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보편타당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칸트는 ‘선험적 자아’인 주관이 감각의 내용을 질료로 삼고 상상력을 매개로 이 질료에 어떤 보편 개념을 부과함으로써 인식(앎, 지식)을 구성해낸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보편타당한 인식의 방법으로 독단론과 회의론의 함정과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선험적 종합판단’이라는 제3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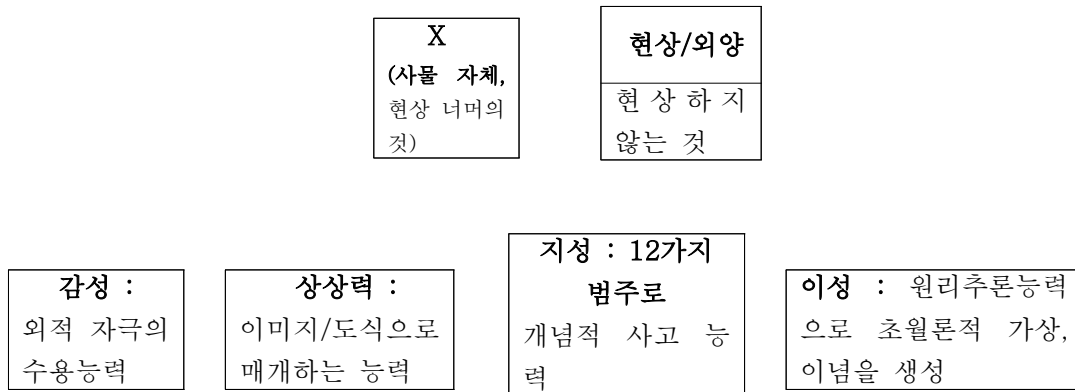
칸트의 이러한 ‘철학 혁명’은 인식 대상이 사물 자체가 아니라 주체의 감성과 지성이라는 선험적 형식에 의해 구성된다는 관점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칸트의 코페르쿠스적인 전회의 핵심은 자연법칙의 근거가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인식 형식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리의 기준을 사물 자체(존재와 사유의 일치)에서 인간 주체의 인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인식 주체와 객체를 연결시켜주는 공통된 매개는 기존의 형이상학에서 주장한 신이나 본유 관념도 아니고, 경험론에서 제기한 개별자의 특수한 경험도 아니며, 바로 인간 주관의 고유한 틀과 형식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 대상은 물 자체가 아니라 감각의 다양한 인상 내용을 감성과 지성의 일정한 선험적 형식을 통해 정리한 산물이다. 우리 의식 바깥에 있는 존재 자체를 우리 의식이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비추어 그 존재 근거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식의 형식과 틀로 감각에 잡힌 인식의 재료를 정리하여 그 존재 근거를 밝히는 방식이다. 그래서 ‘인식 주체의 인식형식이 곧 인식된 대상 세계의 존재형식’이 된다. 여기서 칸트의 비판적 종합의 요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인식의 형식은 타고난다는 점, 즉 인식 능력은 선험적이라는 점은 바로 합리론을 계승하고 경험론을 비판하는 측면이고, 그 인식의 내용은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만 획득되어야 한다는 점은 바로 경험론을 계승하고 합리론을 비판하는 측면이다.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이성이 감각에 주어진 세계의 재료를 가지고 순수이성의 선험적 형식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인식은 감성과 지성의 결합의 산물이므로, 어떤 대상이 감성적 직관에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자유나 영혼이든 신이나 우주든 사고할 수는 있어도 인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험적으로 인식한 부분은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할 권리는 없지만 경험과 관계없이 보편타당한 인식이 되며, 감각에 주어진 세계의 재료에 의거한 구성이므로 경험적으로 새로운 인식 내용과 정보에 도달할 수가 있는 종합판단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고유한 틀인 선험적 형식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므로, 인간 공통의 인식틀이 존재한다. 그 인식의 형식과 틀은 경험에 앞서 있는 것(선험적)이면서 경험 이후의 근거가 되어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초월론적(transzendental)’이다. 이렇게 선험적 형식에 의해 인식된 세계는 그러한 인식틀에 의해 객관적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세계에 대한 보편타당한 필연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판단은 선험적 종합판단뿐이다. 선험적 종합판단은 우리 앞의 보편타당성을 확보하면서도 새롭게 더 많은 앎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험적 판단인 분석 판단은 우리 앞의 선험적인 필연성과 보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기존의 앎보다 더 새롭고 많은 지식을 확장시켜 주지는 않으며, 종합판단은 기존의 앎과 다른 새로운 앎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보편적 타당성을 보증해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이 보편타당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은 선험적 종합판단인 것이다.

(3) 칸트 철학의 초월론적 인식의 원리와 개념들

-칸트의 문제 의식 : 인간 주관이 객관세계에 대하여 보편타당한 필연적 인식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① 현상(現象, Phenomenon, 자연)과 본체/가상체(noumenon, 本體/可想體).

본체(noumenon, 本體, 예지계(叡智界, the intelligible))는 현상계에 현상되지 않은 원인을 생각해본 세계, 실천이성에 의해 해명이 가능한 세계이다. 물 자체(Ding an sich)는 한계 개념으로서 그것을 범주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려지지 않은 그 어떤 것(생각조차도 안 되는 것)이라는 이름 아래서 생각하기만 하는 것이다. ‘물 자체(Ding an sich)’를 ‘초월론적 대상’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인식 = 감성 + 상상력 + 지성(의 산물)
= 직관 + 사유(의 결과물)

모든 인식은 감각 자료와 범주의 결합에 의해 성립한다. 하지만 인식은 ‘물 자체’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지각의 연관을 규율하는 주관적인 규칙들을 알 뿐이다. 그리고 우리 인식의 객관성은 범주로부터 나온다. 감각자료가 ‘객관적으로’ 되는 것은 이 범주들을 개별적 감각 자료에 적용시키는 것을 통해서일 뿐이다.”

* 인간 의식의 선형적 형식과 능력의 세계를 ‘초월론적(transzendental) 영역’이라 한다.

② 감성 :

외적 자극을 수용하는 능력, 대상 자체와 직접 관계하면서 감각기관에 의해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감각 또는 지각 활동. 선형적 직관형식(대상에 주어지는 형식인 시간(‘서로 잇달아’라는 표상)과 공간(‘서로 겹하여’라는 표상))/ 경험적 직관(오감의 감각적 내용)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과 더불어 시작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경험으로부터 생겨 나오는 것은 아니다.”

③ 지성/오성(understanding) :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으로 밖(대상 자체)에서 주어지는 감각 재료들을 종합하고 통일해서 대상을 규정하는 사고 작용. 주어진 현상에 대해 개념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으로 직관된 표상들을 비교하고 종합하여 개념을 형성하거나 개념에 따라 판단하는 사유작용. 지성의 선형

적 형식은 12범주(개념들). 범주는 카테고리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경험하든지 그 틀에 따라 인식주체가 현상들을 종합해서 구성하는 존재자에 관한 진술의 보편적 형식을 의미한다.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경험론적 입장**)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성론적 입장**)이다.”,
“지성은 아무것도 직관하지 못하며 감성은 아무것도 사유하지 못한다.”(감성이 없다면 어떤 대상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지성이 없다면 어떠한 대상도 인식되지 못할 것이다.)

<칸트의 12범주와 판단표>

분량	성질	관계	양상
단일성 (x는 y이다) [단칭판단]	실제성 (x는 y이다) [긍정판단]	실체-속성 (x는 y이다) [정언판단]	가능성-불가능성 (x는 y일 수 있다) [개연판단]
다수성 (어떤 x는 y이다) [특칭판단]	부정성 (x는 y가 아니다) [부정판단]	원인-결과 (x이면 y이다) [가언판단]	현실성(현존-부재) (x는 y이다) [실연판단]
전체성 (모든 x는 y이다) [전칭판단]	제한성 (x는 비y이다) [무한판단]	상호작용 (x는 y이거나 z이다) [선언판단]	필연성-우연성 (x는 반드시 y이다) [필연판단]

; 이러한 12가지 범주에 의해 감각자료가 종합되어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의 어떠한 어떠한 무엇’으로 인식된다.

④ 상상력/구상력(imagination) :

직관의 감각 내용들을 지성의 개념의 형식으로 포섭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이미지(도식, schema)을 통해 감성과 지성을 매개하는 능력. 재생적 상상력과 생산적 상상력 두 종류가 있다. 도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라 지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성을 작동시킨다.

⑤ 이성(reason) :

주어진 현상과 무관하게 단지 개념들만 가지고 사고를 진행시키는 능력으로 원리들에 대해 추론하는 능력(사변이성, 이론이성). 인과개념을 초험적으로 사용하므로 초월론적 가상, 이념(Idee, 이성개념-신, 영혼, 우주)이 발생한다. ‘실천이성’은 ‘윤리적 판단능력’을 말한다.

이성은 모든 지성작용을 원리적으로 종합하고 통일하여 체계화하고 규제하는 능력이다. 지성이 개념의 능력, 규칙의 능력인 데 반하여 이성은 이념(理念)의 능력이며, 인식에서 지성은 구성적(構成的)인 데 반해 이성은 지성에게 가능한 방향을 주는 점에서 단순히 규제적인 것이다.

***이율배반(antinomy) :** 이성이 가진 한계로 인해 빠지는 오류로서 이성의 운명이다. 우주론에서 이율배반의 정립 명제(세계는 유한하다)는 본체계에 타당하고 반정립의 명제(세계는 무한하다)는 현상계에 타당한 진리 명제이다.

⑥ 초월론적 통각/순수 통각/초월론적 자아 :

상이한 시간에 행해지는 범주 활동을 동일한 하나의 시간적 지평에서 행해진 것으로 재통일하는, ‘생각하는 나라는 자기의식의 활동 자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잡다한 재료들을 시간적 연속선상에서 통일적으로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인 근거로서 표상

이나 경험의 통일성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동일성을 가리키는 지각에 대한 지각 곧 자기의
식을 뜻한다.

◎ 용어정리 :

- 초월론적(超越的 transzendental 트란첸덴탈) : 경험과 감각 이전의 것으로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 초월적인 것은 존재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것이다. ↔ 경험적 empirish
- 초재적/ 초월적(超在的/超越的 transzendent 트란첸덴트) = 초험적(超驗的 ; 감각 경험을 벗어나 있는) ; ↔ 켈레말은 immanent 임마넨트(내재적, 내재하는)

가. 칸트적 혁명 첫 번째 측면 :『순수이성비판』의 통찰력

1. 칸트적 혁명의 첫 번째 측면 :

시간은 탈구되어 있다! The time is out of joint!(햄릿의 말)

탈구된 시간은 그 결과를 볼 때 자기의 돌쩌귀를 벗어난 문과 같다. 돌쩌귀는 문이 열리고 닫히도록 하는 축을 의미한다. 라틴어 카르도Cardo는 시간에 의해 측정된 주기적인 운동이 거쳐 지나가게 되는 바로 그 기본 점들(즉 문의 돌쩌귀와도 같은 기본 점들)에 시간이 종속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이 자기의 돌쩌귀 안에 머문다는 말과 시간이 운동에 종속되어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물론 이때의 시간은 곧 운동의 측정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간격 또는 숫자가 된다. 고대 철학에서의 시간 개념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햄릿의 경우 “시간은 탈구되어 있다”처럼] 자기의 돌쩌귀를 벗어난 시간은 운동-시간 관계의 뒤집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반대로 운동이 시간에 종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운동 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 특히 우리는 미로를 바꾸게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반대로 운동이 시간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운동 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 특히 우리는 미로를 바꾸게 된다. 즉 미로는 더 이상 순환을 이룬다거나 또는 미로 자신의 복잡스러움을 표현해주었던 나선 모양을 이루지 않는다. 미로는 이제 하나의 실을, 말하자면 그것이 단순하고 곧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비스러운 하나의 직선을 이루게 된다. 마치 보르헤스가 이야기했던 “하나의 유일한 직선으로 구성된, 나눌 수 없고 멈추지 않는 미로”처럼 말이다. 이처럼 더 이상 시간은 자신이 측정하는 운동에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 반대로 운동이 자신의 조건을 이루는 시간에 관련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순수이성비판』 속에 나타난, 칸트에게서 보이는 최초의 거대한 뒤집음이다.

물론 시간은 이제 더 이상 연속성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속성이라는 것은 오로지 시간 속의 사물들, 시간 속의 운동들과만 관련된 성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시간 자체를 연속성이라고 주장한다면, 시간은 또 다른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시간들과] 무한정으로 연속해야 한다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시간과 달리 사물들은 다양한 시간 속에서 서로 연속한다[사물들의 연속성]. 뿐만 아니라 사물들은 동일한 시간 속에서 동시에 있기도 하며[사물들의 동시성]. 또 어떤 시간 속에서는 그대로 머물러 있기도 한다[사물들의 영속성]. 이렇게 볼 때, 시간을 연속성에 의거하여 정의한다든지, 공간을 동

시성에 의거하여 정의한다든지, 영속성을 영원성에 의거하여 정의한다든지 하는 일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속성, 연속성, 동시성은 [시간의 본래 속성들이 아니라] 시간의 [사물들이나 운동들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양태들이요 관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시간을 연속성에 의거하여 정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을 공존에 의거하여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공간과 시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저마다의 규정을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 운동하며 변화하는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있지만, 시간 그 자체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변화하지도 않으며 운동하지도 않는다. 말하자면 시간은 변화하고 운동하는 모든 것의 형식이지만, 시간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 불변의 형식인 것이다. 또 시간은 영원한 형식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 시간은 영원하지 않은 것의 형식, 즉 변화와 운동의 불변의 형식인 것이다. 시간이 지나는 이러한 자율적인 형식은 그 어떤 깊은 신비를 가리킨다. 즉 이 형식은 칸트가 발견하거나 창조해야 할 시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160~164쪽)

☞ 시간은 탈구되어 있다!(햐릿) :

첫 번째 칸트의 통찰력 : 시간관(운동-시간 관계)의 전복

① 고대의 시간관 : 운동에 종속된 시간. 연속성의 시간 → 복잡한 인과가 만든 미로의 시간

② 칸트의 탈구된 시간관(현대의 시간관) :

측정 단위나 계산 형식으로서의 시간은 사물들의 운동에서 벗어나 있다. 불연속성의 시간 → 나눌 수 없고 멈추지 않는 일직선의 미로의 시간.

- [사물.세계 감각경험의 가능 조건 = 불변하며 동일한 시간과 공간] : 사건의 전후 순서로서의 시간/ 사물의 공존 자체로서의 공간 ; 내적 직관과 외적 직관을 가능케 하는 감성적 경험의 선천적인 형식.조건

-연속성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을 정의할 수 없다.

-개별적이고 다양한 시간과 공간으로 느껴지는 것은 시간 속의 사물들과 운동들과 관련된 성질로 인한 것이다. 사물들의 연속성, 동시성, 영속성 등.

- 시간 형식은 선형적으로 있고 운동은 시간 형식에 따라 발생한다. 시간이 운동의 조건.

- 시간은 변화하고 운동하는 모든 것의 불변의 형식 : 시간 = 변화와 운동의 불변의 형식

☞ 『차이와 반복』: 운동에서 탈구된 시간은 미친 시간이다. 이 시간 속에서는 어떤 운동도 발생도 가능한 시간이다. 무한히 이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으로의 전환!

2. 칸트적 혁명의 두 번째 측면 : “나는 타자이다 Je est un autre.”(랭보의 경구)

먼저 칸트는 자아Moi는 그 자체가 시간 속에 있으며, 따라서 자아는 변화하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즉 자아란 시간 속에서 변화를 체험하는 수동적 또는 수용적인 자아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Je가 있다. 이 나는 매순간마다 현재, 과거, 미래를 분배하면서 끊임없이 시간의 종합을 이루는 행위, 또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의 종합을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 나와 자아는 이렇게 근본적 차이의 조건 아래에서 나와 자아를 서로 결부시키는 시간의 선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나의 실존은 결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어떤 존재의 실존으로 규정될 수 없다. 우리는 데카르트와 더불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나는 **생각한다**가 하나의 규정임이 사실이라면, 규정은 반드시 자신의 규정 대상을 필요로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나는 **생각한다**는 규정되지 않은 어떤 실존(나는 **존재한다**)을 자신의 대상으로 함축하게 된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도대체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 실존(규정 대상으로서의 나는 **존재한다**)이 나는 **생각한다**에 의해 규정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실존은 오로지 시간 속에서만, 시간의 형식 아래에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현상적이고 수용적이며 변화하는 한 자아의 실존으로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유일하고 적극적인 한 주체로서 구성할 수 없다. 단지 자기 사유의 활동성만을 스스로에게 표상하는 수동적인 자아, 말하자면 자아를 촉발(변용)시키는 어떤 타자로서의 나를 스스로에게 표상하는 수동적인 자아를 나 자신으로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나는 시간의 형식에 의해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지만, [바로 이 시간의 형식을 통해] 나는 하나인 셈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종합을 이루면서 필연적으로 시간의 형식을 촉발한다면, 이와 맞물려서 자아는 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촉발되되 시간의 형식 속에서 그 내용으로서 촉발되기 때문이다. 규정 가능한 것의 형식은, 이처럼, 규정된 자아로 하여금 타자로서의 규정[나]을 스스로에게 표상토록 한다. [중략]

이렇듯 랭보의 경구는, 형식이 질료 속에서 육화된다고 할 때의 바로 그 질료와 구분되는 형식에, 사물을 규정하는 형식에,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보이는 것과 같은 주형에 관계한다. 그러나 칸트에게서 이 경구는 시간 일반의 형식에 관계한다. 즉 나의 행위와 나의 행위가 부여되는 자아가 서로 구분되는 시간 일반의 형식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칸트에게서 중요한 것은 주형이 아니라 [나에게서 자아로 그리고 자아에게서 나에게로 나아가는] 무한한 **변조modulation**이다. 이처럼 시간은 주체 속에서 자아와 나를 구분하기 위하여 주체의 내부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때 시간은 나라는 것이 자아를 촉발시키는 형식이 된다. 즉 정신 자신이 스스로 촉발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중략] 이렇게 볼 때 “내성의 형식”은 시간이 우리에게 내적이라는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내성이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을 분할하며 둘로 쪼갬다는 사실 또한 의미한다. 그리고 이 둘로 조깅은 결코 그 끝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하면 시간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라하여 시간을 구성하는 것은 곧 현기증이자 흔들림이다.

(165~167쪽)

☞ “나는 타자이다”(랭보) :

-칸트의 시간 속의 주체성 :

시간 속에 놓여 있는 분리된 나와 자아를 가능케 하는 시간의 형식(=가르는 선이자 껍데기 묶는 실로서의 시간)

Moi : 대상으로서의 자아 - “시간 속에서 변화를 체험하는 수동적 또는 수용적인 자아” ; 수동적인 자아 -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의 행위 중 ‘나의 규정됨’

Je : 주체로서의 나 - “매순간마다 현재, 과거, 미래를 분배하면서 끊임없이 시간의 종합을 이루는 행위, 또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의 종합을 이루는 행위” : 적극적인 나 -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의 행위 중 ‘나의 규정함’

나는 생각한다-규정(행위)↙ 시간성

나는 존재한다-피규정자

시간 안에 있는 것 :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

☞ 생각 활동이 생각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있는 것이 사유행위임

시간 : 내적 감각 = 내감의 형식

공간 : 외적 감각 = 외감의 형식

☞ 내감을 촉발하는 것은 외부의 사물인 타자이다.

시간 너머의 주체로서의 나

그러므로 나는 타자다.

시간 형식을 촉발하는 나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산물인 자아

→ 자아는 나에 의해 무한한 변주가 가능하다.

시간은 본질적으로 현기증이다.

-랭보의 급진적 버전 :

나=주형(형식)

자아=질료

나. 『실천이성비판』의 통찰력

3. 칸트적 혁명의 세 번째 측면 : “선이 무엇인지는 법칙이 말해준다.”(카프카의 경구)

만약 사람들이 선(善)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선에 스스로 따를 줄 안다고 한다면 사실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따라야 할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따라서 그들은 선을 대신할 법칙을 필요로 한다.] 결국 법칙들 또는 법칙이란 “이차적인 수단”만을 의미할 뿐인 것이다. 즉 법칙들 또는 법칙은 신들이 버린 세계[그리하여 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된 세계] 속에서 보게 되는 선의 대리자만을 의미할 뿐이다.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진정한 정치가가 없을 경우에는 이처럼 사람들이 따라서 처신해야 하는 일반적인 행동 지침들만 남는다. 따라서 법칙들은 최상의 원리의 역할을 하는 선을 모방한 것과 같다. 법칙들은 몇몇 조건 아래에서 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하지만 칸트가 법칙을 이야기할 때의 법칙은 위의 그것과는 반대로 최고의 심급에 관계한다. 칸트는 바로 이 같은 법칙을 통해서 운동-시간 관계의 뒤집음만큼이나 중요한 법칙과 선의 관계의 뒤집음을 행한다. 즉 이제는 선이 법칙에 의존하는 것이지, 법칙이 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인식의 대상이 주체(나)의 주위를 맴돌듯이, 이제는 선이 주관적인 법칙의 주위를 맴도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관적”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법칙은 법칙 자신 이외에는 그 어떤 내용도 지닐 수 없다. 왜냐하면 [법칙에 만약 그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법칙의 모든 내용은 결국 법칙을 법칙이 모방하게 될 어떤 선을 향해서 다시 물고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법칙은 그 자체로 순수 형식일 뿐, 감각적이거나 인지 가능한 그 어떤 대상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법칙은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다. 법칙은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행위의 준칙maxime이 모순 없이 보편적인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행위의 동기가 이 준칙 이외에 다른 대상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모든 행위는 도덕

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도덕법칙은 이처럼 보편성의 순수 형식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법칙은 선행하기 위해 의지가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말한다. 『실천이성비판』의 이 같은 텅 빈 형식으로서의 법칙은 『순수이성비판』의 순수 형식으로서의 시간에 대응한다. 결국 법칙은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음의 명령만을 우리에게 말할 뿐이다. 선을 무시하고서라도, 즉 순수 명령의 대상을 무시하고서라도 너는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때 [무시의 대상인] 선이 법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지, 결코 법칙이 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카프카의 단편 「유형지에서」가 그 예를 보여주고 있듯이 법칙이란 순수하게 실천적인 규정이지 이론적인 규정이 아니다. 법칙은 인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칙에는 “인식해야” 할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다. 법칙은 오로지 법칙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만 인식되며, 오로지 법칙 자신의 판결과 집행을 통해서만 작용한다. “법칙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낳는다”라는 카프카의 말은 이런 의미에서이다. 법칙은 [법칙의 행위인] 판결과 구분되지 않으며, 또 판결은 법칙의 적용과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유죄이되 필연적으로 유죄인 우리의 마음의 육신 속에 새겨진 법칙의 자국을 통해서만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죄의식은 시간의 실을 [『실천이성비판』의 차원에서] 되풀이한 도덕적 실과 같은 것이다. (168~171쪽)

☞ “선이 무엇인지는 법칙이 말해준다.”(카프카의 경구) :

플라톤의 선 → 법칙 = 법, 규범(행동 규칙) : 좋은 것을 획득하는 방법

칸트의 정언명령 : 법칙 → 선

*정언명령 : 순수형식=내용 ; 법칙의 보편성이 그 내용을 형성한다.

*법칙 : 법칙은 수행적이다. 어떤 법칙을 법칙으로 만드는 것은 수행시 모순적이지 않고 보편화 가능할 경우이다. 그것의 수행이 가능하면 법칙이 된다.